

훈선 부추기는 전남 농정...아타는 농민들만 '발동동'

가격 폭락 대파 산지폐기 요청 외면...진도·신안 밭·창고에 쌓인 채 방치 돼지열병 사료 정보 제공은 미적...농민들 "누구를 위한 방역이냐" 분통

전남도가 대파 가격 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이 잇따르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농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도·신안 대파 농가들은 전남도의 미온적 대응에 대파를 폐기하지 못해 쌓아두고 있는가 하면, ASF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료와 관련해서도 농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에 따르면 신안군 농민들은 대파생산자협의회 주관으로 대파 산지 폐기를 요청할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대파 가격이 폭락해 군에 피해 보전을 위한 산지 폐기를 요청했는데, 군이 별다른 대책을 하지 않아

대파가 밭과 창고에 그대로 쌓여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 호소다. 결국 농민들끼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진도군, 신안군 대파 재배 농민들은 지난달부터 한 달 가까이 농협을 통해 군과 전남도에 대파 산지 폐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 입자도에서 대파를 재배하는 김창욱 씨는 "설 이후 한때 1000원대까지 올랐지만 최근 다시 800~900원대로 떨어져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나 시·군에서 산지 폐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예정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산자 피해는 외면한 채 단순히 물가 안정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전 오름세를 보이던 대파 가격은 2558

원에서 지난 20일 2322원으로 9.23% 하락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파(1kg 기준) 가격은 2228원으로 전월(1973원)보다 12.92% 올랐지만, 전년(2606원)보다 14.5% 낮고 평년(2983원)보다도 25.31% 낮은 수준이다. 2년 전 가격(3649원)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떨어졌다.

한승용(62·진도군 고군면) 씨는 "운송료, 수수료, 하차비, 박스값, 망값, 팔레트 이용료 등을 합치면 작업비만 800~900원"이라며 "경매가가 1000원이면 실제 물건값은 100원에 불과하다. 최소 1500원은 돼야 본전"이라고 토로했다.

농협 측 역시 정부의 명확한 판단이 없어 훈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환호 진도 선진농협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산지 폐기를 요청했지만, 진행 여부는 물론 불가 사유조차 전달받지 못한 무응답 상태"라며 "정부가 대파 가격 하락을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만 보고 생산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안, 진도군과 전남도는 현재까지 폐기

가 필요한 대파 물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진도군 원예특작팀 관계자는 "평균 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경우 폐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며 "최근 가격이 1400원대까지 내려가 다음 주 재배 농가 30명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농협이나 농가 의견을 종합했을 때 정확한 폐기 물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당장 폐기를 원하는 농가는 일부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식량원예과 관계자는 "산지 폐기는 도가 정한 주요 농산물 기준 가격을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올해 대파 기준 가격은 1kg당 1253원이다. 전남 기준 가격이 1400원대여서 현재 여건에서는 산지 폐기 추진이 쉽지 않다"며 "향후 가격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하락 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올해 들어 도내에서 3차례의 ASF가 발생하고, 특정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됐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는 않는데

게 어떤 사료가 문제인지조차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해당 사료의 명칭이나 제조 업체명을 익명 처리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농민들 스스로 정보를 총동원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등 애를 태우고 있다.

농민들은 ASF 감염 위험을 줄여보겠다고 자체적으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소식을 주고 받으며 업체를 추정하고, 일일이 사료 제조업체에 문의하는 등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진도 등지에서 대파 가격이 폭락해 가격 형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집회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며 "사료 등과 관련해서도 행정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카드 주인 잠든 새벽에 수천만원 결제 '화들짝'

순천 주민 6명 5400만원 피해 경찰, 피싱 범죄 가능성 수사

순천에서 새벽시간대 수천만원이 무단 결제되는 신용카드 도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부터 20일 새벽 사이 순천 지역 주민 6명의 신용카드가 무단 결제돼 5400여만원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A씨는 20일 새벽 2시 6차례에 걸쳐 구매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총 1300만 원이 할부 결제 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 10분께 삼성카드로부터 "300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한도 초과로 거절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일시불로 200만원이 결제됐다. B씨는 카드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취소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이 결제된 사례, 1200만 원이 결제된 사례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삼성·롯데·하나카드 소유자들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3개 카드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무단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싱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카드 결제 대행업체와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새학기 교과서 공급하네 신학기를 앞둔 24일 광주시 서구 광주대동고 3학년 학생들이 새 학기 교과서를 배부받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영암 대불산단서 베트남 노동자 가스 질식 사망

영암 대불산단에서 베트남 국적의 작업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사 숨졌다.

24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산단 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사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선박 블럭' 제작 작업장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마스크에 산소 대신 아르곤 가

스 배관을 잘못 연결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석열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피고인이 항소했다.

윤 피고인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피고인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 이변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하기고,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전날 내부 회의를 한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교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